

임실군-베트남 뚜옌광성 '맞손'

외국인 계절근로자 교류에 관한 업무협약 체결

임실군(군수 심민)과 베트남 뚜옌광성(당위원회 서기 차우반람)이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활발한 교류를 위해 손을 맞잡았다.

심민 임실군수는 지난 13일 농촌인력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베트남 뚜옌광성 당위원회 서기인 차우반람을 직접 방문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교류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임실 관광 홍보에 나섰다.

이날 협약식에는 심 군수를 비롯한 대표단과 차우반람 베트남 뚜옌광성 당위원회 서기를 비롯한 성 노동보훈사회부 국장 등 간부 공무원들이 참여

한 가운데 이뤄졌다.

협약을 통해 군은 안정적인 우수 농촌인력을 확보하고 안전한 거주와 근무 여건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에 뚜옌광성은 근로자 선발과 훈련을 지원하는 등 이태방정책 확보와 사전교육 등을 하기로 양측은 협의했다.

군은 향후 농가의 수요조사와 유치 시기 등을 파악해 베트남 뚜옌광성에 모집 및 선발을 통해 인력교류를 요청할 계획이다.

군은 지난해 187명의 계절근로자 유치에 이어 올해도 200명의 계절근로자

를 유지했다.

또한 소규모 농가의 호응이 높은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을 3년째 우수하게 운영하고, 농촌 근로자 기숙사 건립을 2025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는 등 고질적인 농촌인력난 해소에 적극 나서고 있다.

심 군수는 이어 홍콩으로 이동해 한국관광공사 홍콩지사(지사장 문선옥)를 찾아 2025년 임실방문의 해를 맞아 한국에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는 데 머리를 맞댔다.

홍콩지사에서 심 군수는 문선옥 지사장을 만나 한국 관광에 관심도와 방문 빈도가 높은 중화권과 아시아권 국가를 타깃으로 한 방한 관광객을 임실로 유도하기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서는 현지 시장동향 취회와 주요 관광지 마케팅 전략 수립을 위한 외국 관광객 유치에 대한 호응감 높은 논의가 진행됐다.

이어 임실군 옥정호 출렁다리와 봉어섬 생태공원, 대한민국 유일의 치즈 체험 일번지인 임실치즈테마파크 등 외국 관광객을 겨냥한 홍보마케팅도 펼쳤다.

심 민 군수는 이번 국외 방문을 통해 "우수한 농촌인력 확보를 통한 일손 부족과 농촌 인건비 상승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2025 임실방문의 해를 맞아 옥정호와 성수산, 임실치즈테마파크, 사선대, 오수 의견관광지 등 우수한 관광지를 해외에 널리 알려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방문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으로 뛰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임실군과 베트남 뚜옌광성이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활발한 교류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임실군, 청년상단과 함께하는 흥단마켓 개최

옥정호 봉어섬 · 요산공원 일대

임실지역의 청년들이 모인 청년상단 협동조합(대표 이승재, 이하 청년상단)이 옥정호를 찾는 관광객들을 위한 로컬문화 콘텐트인 흥단프리마켓을 지난 15일 개최했다.

이번 흥단프리마켓은 임실군 최고의 관광명소이자 작약꽃이 만발한 옥정호 봉어섬과 요산공원 일대에서 진행됐다.

이날 봉어섬을 찾은 관광객과 지역민들은 수려한 옥정호 경관뿐만 아니라 임실 청년들이 꾸민 문화장터도 즐길 수 있어 특별한 여행이 됐다.

또한 이번 행사는 가정의달을 맞이하여 아이들을 위한 다양한 게임 이벤트 및 보물찾기 등이 진행됐으며, 특히 청소년부터 어린이들까지 이미



유행으로 자리 잡은 '인생네컷' 포토존이 미려되어 한 장의 추억을 남길 수 있어 큰 호응을 얻었다.

흥단프리마켓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농특산물, 간식거리, 반려동물사료 등 임실지역산 10개 팀이 참여해 다양한 상품과 먹거리가 판매됐고, 아울러 임실에총의 다채로운 문화

공연을 선보이면서 옥정호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오감이 즐거운 여행을 선사했다. 앞으로도 임실군신활력플러스 추진단과 청년상단은 이번 행사를 포함해 올해 총 5번의 프리마켓을 개최하여 지역과 상생하는 임실만의 청년문화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갈 계획이다.

/임실=진홍영 기자



최영일 순창군수가 16일 순창군 노인대학 학생들에게 '어르신이 행복한 활기찬 순창'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하고 있다.

"어르신이 행복한 활기찬 순창"

최영일 순창군수, 순창 노인대학 초청 특강 '호응'

최영일 순창군수가 16일 순창군 노인대학(대학장 강병문) 학생들에게 '어르신이 행복한 활기찬 순창'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실시해 큰 호응을 얻었다.

최근 리모델링한 노인회관 3층 대강의실을 가득 메운 200여 명의 어르신들은 최 군수의 강연에 때로는 진지하게 때로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시종일관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날 특강에서 최 군수는 순창군의 비전과 군정 목표 및 주요 노인복지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지역사회를 이끌어가는 바람직한 어르신의 모습에 대한 당부도 잊지 않았다.

최 군수가 강조한 주요 노인복지정책은 △노인 일자리사업 확대 △노인이·미용비 지원 △보행보조기, 전동차, 난청노인 보청기 지원 △작은목욕탕 활성화 △비스스강장 운영의자 및 선풍기 설치 △패럴림픽 노인복지시설

조성 △순창군 공설추모공원 조성 △화장장 남원순화원 공동사용 등 피부에 와닿는 복지정책들로 참석하신 어르신들로부터 많은 공감을 불러일으켰다.

최 군수는 "군민 모두가 행복한 순창을 만들기 위한 5대 군정 목표 중 4번째가 '따뜻한 복지'다"면서 "따뜻한 복지의 중심에 어르신들이 있는 만큼 어르신들이 행복하고 활기찬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고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특히 최 군수는 "끊임없는 열정으로 배움을 멈추지 않는 어르신들을 대할 때마다 깊은 감명을 받는다"면서 "이번 특강을 통해 가정이나 사회에서 존경받는 어른으로 거듭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순창군에 대한 자부심도 느끼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순창군수, 유기농복합센터 전시물 계약자 선정 과정 경찰 수사 의뢰 지시

최영일 순창군수가 16일 '유기농산업 복합센터' 전시물 제작 설치 사업 계약자 선정 과정의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경찰에 수사 의뢰를 지시했다.

순창군은 지난 7일 간부회의에서 최영일 군수의 '유기농산업 복합센터' 전시물 제작 설치 사업 계약자 선정 과정에 대해 특별감사 지시를 받고 감사를 실시한 결과 선정 과정에 강한 의혹이 있다고 판단하여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최근 최 군수는 "유기농산업 복합센터 전시물 제작 설치 사업 계약자 선정 과정에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면서 "불공정이나 비리 행위 등 일체의 비위 행위가 없도록 명명백백히 조사하라"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에 군 감사부서는 1주일간의 특별감사를 강도

높게 진행했다.

특별감사에 착수한 감사부서는 평가위원회 위원, 관계 공무원 및 해당업체에 대해 대대적인 감사를 진행해 선정위원회 진행과정과 채점현황, 평가기준표 등을 감사한 결과, 강한 의혹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군은 자체적인 특별감사만으로는 강제적 조사권이 없는 관계로 선정 절차에서 강하게 제기된 의혹을 더 이상 파악하기 어려워 부득이 수사기관에 의뢰해 의혹을 완전히 해소하지는 방향으로 내부 의견 조율을 거쳐 수사를 의뢰하기로 결정했다.

순창군은 수사 의뢰 이후 경찰 및 법원 관청에 따라 해당 업무 관련 공무원과 관계자 등에 대한 처벌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순창=이양원 기자

지역 소식통

남원시보건소, 6월 말까지 양귀비 대마 불법 재배 단속

남원시보건소(소장 한용재)는 불법 마약류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6월 말까지 양귀비·대마 불법 재배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양귀비의 개화시기 및 대마 수확기에 맞춰 가족사육 농가 및 가정 텃밭, 비닐하우스 등을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

양귀비와 대마는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로 텃밭이나 실내 등에서 손쉽게 재배 가능해 일부 농가 및 가정에서 관상용이나 민간 약재 등의 목적으로 몰래 재배하는 경우가 있으나 양귀비는 목적 불분하고 재배할 수 없고, 대마 또한 행정기관의 허가를 받은 자 외에는 파종하거나 재배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순창군 각 사찰, 불기 2568년 부처님 오신 날 봉축법요식

불기 2568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지난 15일 순창사, 관일사, 구암사 등 순창군 관내 각 사찰별로 봉축법요식을 거행하고 지혜와 자비의 연등을 밝혔.

이날 행사는 증생들이 종소리를 듣고 모든 괴로움을 벗어나 성불하기를 바라는 28번의 타종으로 시작했다.

타종으로 시작한 법요식은 부처님 전에 바치는 육법공양,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불, 법, 승에 귀의를 맹세하는 삼귀의 합창, 한글 반야심경 낭송, 부처님의 말씀을 청하는 청법가, 헌화 및 관불의식을 거쳐 봉축사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각 사찰에서는 봉축 행사에서 가족과 지인들의 행복을 발원하는 연등달기 행사를 진행해 방문객들이 대거 몰렸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최영일 군수는 "불기 2568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해 관내 각 사찰에서 봉축법요식이 열리게 된 것을 참으로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 치즈



벨기에 출신 지명된 신부(Didier l'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N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N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